

發 刊 辭

모름지기 법학은 그 사회의 복잡한 현실들을 정리하고 또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가적 질서를 구축하고 민족대화합을 이룩해야 하는 우리 한국사회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法學」 제34권 제1호의 발간은 사뭇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法學」은 지난해 9월 25일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통일원후원으로 본연구소가 개최한 「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과정에서 제기될 법적 문제점 및 대책」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해서 수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미나는 통일이라는 당면과제를 위해서 법학자·법조인·정부관계자 및 언론인 등 斯界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해 본 場이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이전의 유사세미나와는 달리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논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고 봅니다. 위의 세미나 내용을 정리·발간하는 이번 「法學」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호에 게재된 본연구소 연구원(법과대학 교수님)들의 논문과 서평들은 헌법, 민법, 상법 등의 영역에 고루 걸쳐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玉稿를 보내주신 여러 연구원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영문초록의 작성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安京煥 교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미나 내용의 정리와 교정 등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한 음선필 조교와 조용만 조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1993년 2월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

權 寧 厚